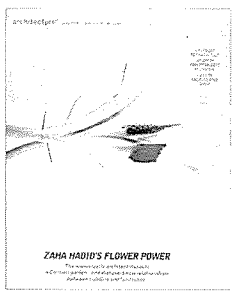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건축문화
a+u
신건축

Architecture

1999년 7월호



이번호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권의 건축이론서, K. Michael Hays편,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와 Robert A. M. Stern외 2 인 저, New York 1880: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the Gilded Age를 소개하였다. 한편, 최근작으로 랜드스케이프를 건축형태화한 Hadid의 Garden Pavilion과 고밀도이면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낸 Morphosis의 롱비치 국제 초등학교를 다루었다.

■ 건축 역사 이론서 소개

▶K. Michael Hays편,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Columbia/MIT Pres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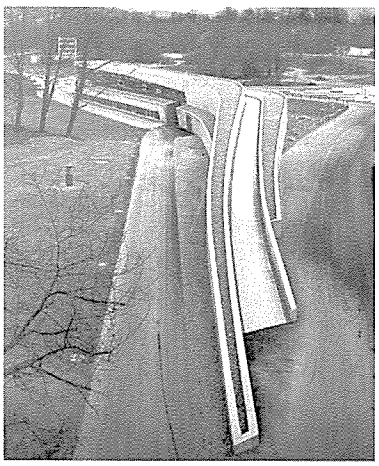
하버드 대학 건축이론 교수로 재직중인 Hays가 엮은 이 책은 John Oakman의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 A Documentary Anthology (Columbia/Rizzoly, 1993)의 뒤를 잇는다. Hays는 이 책이 어느 정도 지적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건축이론에 대한 개론서가 아님을 밝혔다. 잘 알려진 건축가나, 건축 이론가의 글 47편을 수록하였으며, 각 글마다, 그의 소개가 실려있고, 덜 유명한 글일 경우 편집자의 타당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68년 학생 운동이후에 증식한 건축이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을 보여주는 Aldo Rossi와 Robert Ventury의 글도 실려있다. 이 선집은 1968년 이후의 건축 작품의 형태적 분석과 사회적 배경 혹은 콘텍스트의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건축 사고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Robert A. M. Stern외 2 인, New York 1880: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the Gilded Age (Monacelli Press)

New York 1900, New York 1930, New York 1960의 속편 격인 이 책은 항구도시에서 상업, 제조업의 중심지로 변모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비평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떤 한시대의 도시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써, 이 책은 참고 문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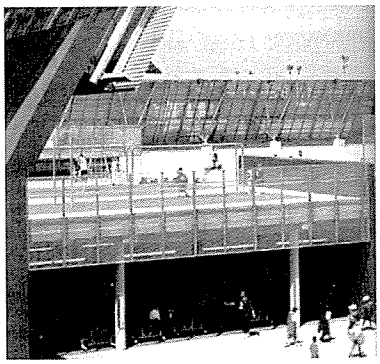
▶ Zaha Hadid의 Weil am Rhein의 Garden Pavilion



매년 독일 각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6개월 동안 꽃 전시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Weil am Rhein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도시는 Vitra 소방서로 인지도가 높은 하디드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그녀는 이전 건물과는 매우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소방서가 오브제와 같다면, 이 건물은 땅의 형태를 닮아 일체가 되어 있다. 즉, 랜드스케이프를 건축으로 변형함으로써 이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가든 파빌리언은 가든을 내려다보는 다리가 되기도 하며,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땅은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이 된다. 한편, 이 건물은 개념적이고 지각적인 측면 뿐 아니라, 설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전략을 갖고 있

다. 건물의 일부가 땅에 매입되어 있어서 주변 온도를 안정시키며, 창의 루버와 콘크리트 벽에 단열재 등이 설치되었다.

▶ Morphosis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국제 초등학교



Morphosis는 기존의 LA지역 초등학교보다 1/3 가량 적은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타입의 공간 절약형 학교를 개발하였다. 놀이공간과 마당 부분을 주차장, 도서관, 윗 부분에 적층하고, 길가로 교실동을 위치함으로써 2.5 에이커 대지에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내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밀도있는 도시성을 반영하여 외부공간과 통합된 단일한 구조물을 제안한 것이다. 천공된 금속판의 배경막을 서측 파사드에 부착하여 도시 외관에 대하여, 학교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일단 그 금속판 밑을 지나면, 각각 성격이 다른 일련의 마당 등이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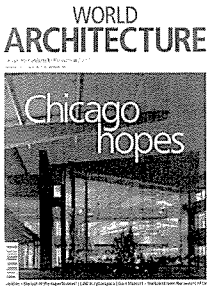
그 밖에 ▶ Michael Maltzan Architecture의 캘리포니아 Pasadena Kidspace Museum ▶ Daly & Genik의 캘리포니아 North Sandiego County, Valley Center House ▶ Polshek and Partners의 코네티컷, Mash-antucket Pequot 박물관과 연구센터 ▶ Machado & Silvetti의 프린스턴 대학 내, Scully Hall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 기 타

▶ 건물의 최적화 설계에 큰 도움이 되는 3차원 열 흐름 분석도의 이용 ▶ 1996년 예루살렘 세미나를 기록한 책인, Technology, place & Architecture를 소개하였다.

World Architecture

1999년 9월호



미 중서부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번호는 Gehry등 해외 스타 건축가들의 중서부에서의 활동과 그 지역의 건축상황을 소개하였다. 한편, 오스트렐리아 건축가, Glen Murcutt의 적절한 재료사용과 적절한 대지 활용이 돋보인 교육센터를 소개하였다. 집중연구 편으로는 세계각국, 특히 일본과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마천루의 건설상황과 기술적 정보를 소개하였다.

■ 최근 소식과 근작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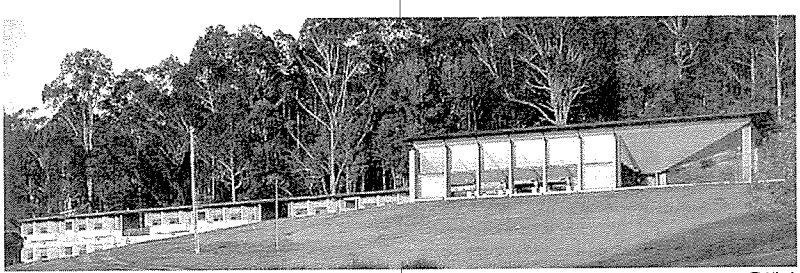
세계 건축계에서 일어난 최근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포루투갈 Porto의 Casa da Musica 설계경기에 당선되고 건축이론가나 페이퍼 아키텍트로 인식했던 미국에서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게된 Rem Koolhaas의 인기도를 다뤘으며, Peter Eisenman의 IFCCA 상 수상 소식 등을 다루었다. 한때 독일 산업의 중심지였던 Ruhr 지구가 Perraudin Architects와 Jourda Architects에 의해 환경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된 행정부와 연구시설 단지로 새롭게 태어난 기사와 영국 국립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의 전례에 따른 재계획 현상공모 발주 기사를 실었다. 아시아 지역은 오사카만에 지어질 안도 다다오의 Westin Hotel 프로젝트와 Fumihiko Maki의 나가타 시, Mandaishima 하버프론트 재개발 계획을 소개하였다.

▶ 오스트렐리아 건축가, Glen Murcutt의 Arthur and Yvonne Boyd 교육센터

이 교육센터의 목적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살아있는 예술 센터"를 제공하고 인접한 곳에 위치한 예술가 거주단지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건물군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교육센터로 접근함에 따라 Murcutt의 트레이드마크인 골이진 철재 베란다 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내부공간은 항상 랜스케이프의 고려에 의해 조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북쪽과 동쪽의 거대한 창은 Shaulhaven 강을 향해 열려 있으며, 재활용된 슬레이트 스크린이 서있어 강의 전망을 때에 따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 21세기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20회 UIA 대회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IA 대회의 주된 주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었다. 중국이 현재 심각한 생태계 문제와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지의 이용과 교통에서부터 개인 건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청하대 교수이자, 중국 건축 협회 부회장인 Wu Liangyong와 Kenneth Frampton은 각각 건축가가 직면한 기술에 관한 문제와 기회에 대해 대조적인 견해를 보였다. Liangyang은 기술의 건설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을 경고한 반면, Frampton은 기술의 영향과 그로 인해 진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건축과 도시에 대한 원동력으로 설명하였다.



Glen Murcutt의 Arthur and Yvonne Boyd 교육센터

■ 지역연구 - 미국 중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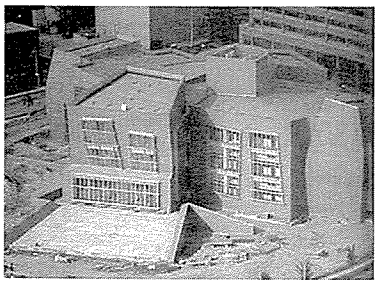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중서부지역 건축가들은 도전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적 부문 프로젝트의 증가와 정부지원의 재생, 그리고 세계경제에 힘입어서 유명한 건축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이 지역에서 최근 외국의 유명건축가들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계 건축가 겸 엔지니어 Santiago Calatrava는 1957 Earo Saarinen이 설계했던 Milwakee 미술관의 확장 계획을 맡았으며, 시카고 Mies van der Rohe가 마스터플랜 했던 IIT 캠퍼스의 새로운 학생회관을 로테르담 건축가 Rem Koolhaas가 디자인하게 되었다.

▶ 지난 10년간 신시내티 대학 마스터플랜의 변형과정을 소개하고 이번 달에 문을 열 Frank Gehry의 Vontz Center와 Harry Cobb의 음악학교를 자세히 다루었다. Vontz Center는 다각형의 버섯모양을 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다. 게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하면서 벽돌로 된 건물을 설계하였으나, 여유없는 예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구실 설계경험이 없었던 게리는 이 방면 전문회사이며, Kahn과 함께 Salk Institute를 설계한 바 있는 Earl Wall과 협력하였다. 위로 치솟은 아트리움은 모듈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실의 평면에 대한 보상이라는 듯이 창의 형태가 비틀어져 있다. 거대한 창을 통해서 충분한 자연광이 유입되고, 실험실에는 기술적으로 걸러진 빛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 SOM과 Frank Gehry의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 Lohan Associates의 시카고 Blue cross Blue Sheild of Illinois ▶ 교육시설 전문 설계회사인 Perkins & Will의 WW Grainger의 본사건물 등 미 중서부에 최근 지어진 건물들을 소개하였다.

■ 기 타

▶ 영화나 광고 매체에서 현대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상황 ▶ 현재 지어지고, 지어질 계획이 있는 마천루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프랑크 게리의 「Vontz Center」

건축문화

1999년 9월호

이번 호는 그동안 그리 주목받지 못한 20세기 초의 거장 R. M. 쉰들러에 대한 특집이다. 다른 근대의 거장과 견주어 손색없는 그의 작품세계를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이 목적인 이번 특집은 그의 13개의 엄선된 주택작품들의 도면과 사진, 간단한 설명과 쉰들러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여러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있다.

■ 특집 - R. M. 쉰들러(Schindler)

▶ 쉰들러의 작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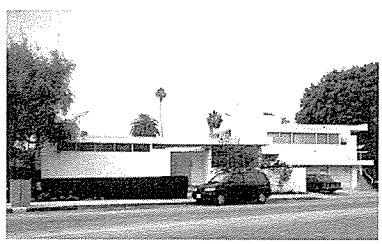
쉰들러는 르 꼬르뷔제 등의 근대 거장들과 같은 시기에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으나, 리챠드 노이트라가 미국의 국제주의 양식 건축가의 대표로 인식되면서 그의 작품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서의 풍부한 공간체험은 그가 근대의 다른 거장들 못지 않은 작품세계를 지녔음을 말해주고 있다.

형태상의 순수함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근대 건축의 주택 공간은 그 개념의 명쾌함이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는지 점점 살기 불편한 것들로 인식되어져온 반면, 쉰들러의 주택은 거주할 사람과 그들의 행위, 그리고 집이 놓여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주택은 '사람들에 의해 거주되기를 기다리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레이너 밴험(Reyner Banham)이 그의 글「Pioneering Without Tears」에서 유럽 아방가르드를 특징지운 '의도와 그것의 달성간의 긴장'이 그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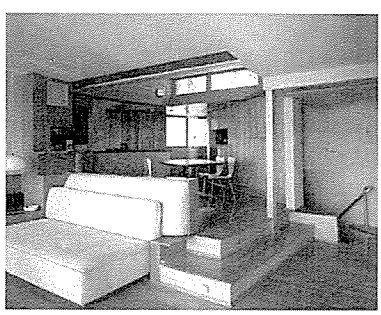
두 차례의 세계대전중에 미국 남 캘리포니아에서는 쉰들러를 시작으로 많은 수의 건축가, 예술가, 작가들이 '해방적 체험'을 맛본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이러한 해방적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벌거벗은 산과 경작되고 있는 들판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1920년대 로스엔젤리스의 풍경에 대조적인 강렬한 조형적 어휘로 이들을 표현하였다.

▶ 쉰들러의 주택 13제

이번 특집에 소개된 그의 주택 작품은 소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선별된 13개 작품이 사진과 도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킹스 로드의 쉰들러 자택(1921-1922)을 포함해 하우 저택(Residence for J. E. How, 1925),



벅 저택(Residence for J. J. Buck, 1934)



윌슨(G. C. Wilson) 저택(1935-1939)

로벨 비치 하우스(Beach House for P. Lovell, 1925-1926), 삭스 아파트먼트(Apartment Building for H. Sachs, 1926-1940), 올리버 저택(Residence for W. E. Oliver, 1933-1934), 벅 저택(Residence for J. J. Buck, 1934), 워커 저택(Residence for R. G. Walker, 1935-1936), 부베슈코(Bubeshko) 아파트먼트(1938, 1941), 윌슨(G. C. Wilson) 저택(1935-1939), 맥키(Makey) 아파트먼트(1939), 포크(S. T. Falk) 아파트먼트(1939-1940), 칼리스 저택(Residence and Studio for M. Kallis, 1946), 티슐러(Tischler) 저택(1949-1950)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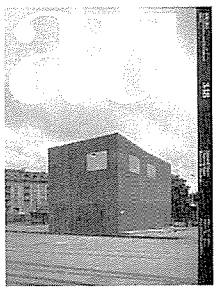
▶에세이

쉰들러의 작품세계를 소개한 에세이들로는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을 한 데이빗 르클레르(David Leclerc)의 『The Cave and Tent』, 야츠카 하지메(八束はじめ)의 『캘리포니안 메타모포즈』, 고토 타케시(後藤 武)의 『케어 오브 더 바디 - 쉰들러의 '공간'』, 라이오넬 마치(Lionel March)의 『Music for the Eyes: Schindler in Proportion』, 쿠마 켄고(常 研吾)의 『민주주의라는 환상』이 게재되었으며, 건축사진작가 줄리어스 슐먼(Julius Shulman)에 의한 쉰들러 작품의 사진과, 슐먼과의 인터뷰 『쉰들러는 언제나 플레서블했다』가 소개되었다.

a+u

1999년 9월

이번 호는 취리히, 암스테르담, 오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의 젊은 건축가 그룹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기곤 & 고이어(Gigon & Guyer), 클라우스 엔 칸(Claus en Kaan), 그리고 옌슨과 스코드빈(Jenson & Scodvin)이며, 유행하는 테마에 대한 의식이나, 작품에 대한 수사적 설명 없이 묵묵하고 솔직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다. 관련된 에세이와 함께 9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작품소개

▶ 3개의 젊은 건축가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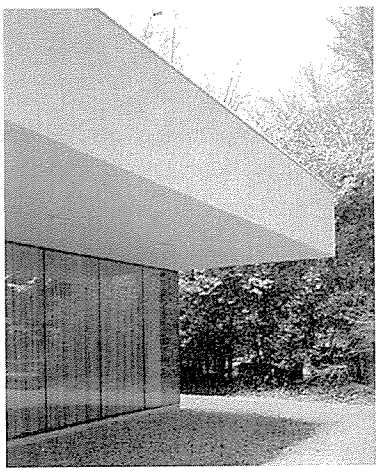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소개한 기곤 & 고이어(Gigon & Guyer), 클라우스 엔 칸(Claus en Kaan), 그리고 옌슨과 스코드빈(Jenson & Scodvin), 이 3그룹의 건축가들은 취리히, 암스테르담, 오슬로라는 유럽의 각각의 도시에서 활약하고있는 젊은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무어라 한 마디로 꼬집어 그 공통점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호에 소개된 한스 이베링(Hans Ibeling)의 에세이에서 그 공통점을 읽어낼 수 가 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활동에 의하여 시대의 환상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클라우스와 칸에게 이론을 선호하는 그 어떤 태도나, 시대의 유행을 염두해둔 선언문을 기대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유행하고있는 테마인 과밀이나 인공적인 랜드스케이프, 자유로운 모빌리티, 버츄얼 리얼리티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품을 과장된 언어로 감싸려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무소의 관심사는 그들이 의도하는 것, 즉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에만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이베링의 지적은 클라우스와 칸에게 뿐만 아니라 이번 호에 소개된 나머지 두 그룹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기곤 & 고이어(Gigon & Guyer)의 작품들

그들의 작품들은 얼핏 보기 무심하고, 눈에 띠지 않는 건물들이다. 표현적 요소들을 극도로 자제해 미니멀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브제적인 순수함을 강조하지 않아 건물이 주변의 상황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소개된 작품들은 SBB(스위스 연방 철도)의 스위치 박스, 취리히 근교 주택 2제, 오스카 라인하르트 미술관 '암 뢰마홀츠(Am R merholz)'의 증·개축, 취리히의 주택 등이다. 이들의 작품에 대한 에세로는 아더 뤼에그(Arthur R egg)의 「창/파사드」가 소개되었다.

▶ 클라우스 엔 칸(Claus en Kaan)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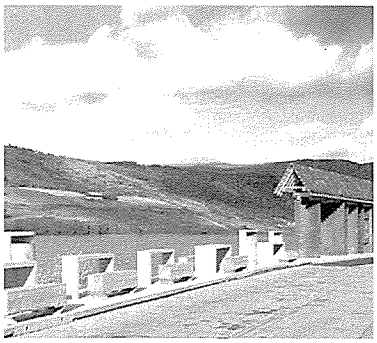


조르프플리트(Zorgvlied)묘지의 리셉션 공간

트웬트(Twente) 공과대학 칼스란(Calslaan) 학생기숙사의 리노베이션에서는 1965년에 지어진 기존의 기숙사건물의 외관을 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형적인 60년대의 국제주의 양식 건물의 외관을 전통적인 유럽 건축의 모티프중의 하나인 두텁고 수직요소가 강조된 벽으로 치환해 내면서 미니멀하고 정제된 현대의 미학을 가미하고 있다. 조르프플리트(Zorgvlied)묘지의 리셉션 공간에서는 벽돌조로 된 인접 건물에 흰색 벽의 외관으로 과감성을 보이면서도,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는 그들의 경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옌슨과 스코드빈(Jenson & Scodvin)의 작품들

수려한 노르웨이의 자연경관을 따라 마련된 등산로에 편의시설들을 마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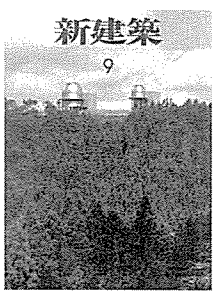
마운틴 로드 프로젝트(Mountain Road Project)

'마운틴 로드 프로젝트(Mountain Road Project)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침묵하듯 소란스럽지 않고 기능에 충실하며, 건축물들 자신의 모습들에 신선감을 잃지 않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슬로 공항 주차장 구조물과 워몰드(Wormold) 주택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경향이 돋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에세이로는 모텐 샤스타드(Morten Sjaastd)의 「생명의 거친 강건함」이 소개되었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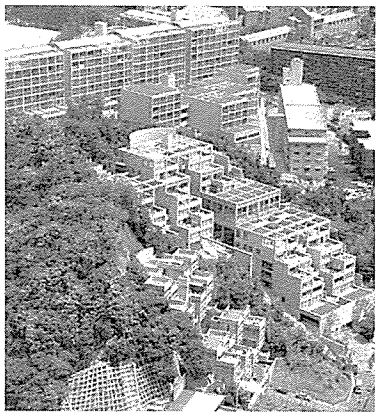
1999년 9월



이번 호의 작품 소개로는 3번째 단계를 맞는 안도 타다오의 '로꼬(六甲) 하우징III'를 포함해,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의 '현립 군마(ぐんま)천문대', 로카꾸 키죠(六角 鬼丈)의 '동경예술대학 미술관', 쿠마 겐코(常 研吾)의 '물의 동굴', 구로카와 키쇼(黑川 紀章)의 토요타(豊田) 대교와 나고야 도시고속도로 등 16개의 최신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새로운 연재물로 「자연이란 무엇인가」가 처음 선보였다.

■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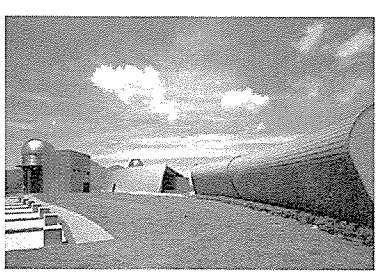
▶ 안도 타다오(安藤 忠雄)의 '로꼬(六k甲)하우징III'



로꼬 하우징은 안도 타다오가 1978년 그 1기를 맡아 연속하여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이다. 1982년 그 1기분이 완공되고, 2기는 1993년에 완성을 보았다. 수려한 산림을 바라보는 산속의 경사지에 계획되어 테라스하우스 형식을 가미한 1기와 2기의 계획과는 달리 이들 2기분의 집합주택군의 후면에 배경처럼 둘러싸면서 3기분이 완성되었다. 3기분의 건물이 들어선 곳은 앞선 것들에 비하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진 평지로, 경사면에 가까운 곳에는 수평으로 확장된 건물군이 앞서 완성된 건물군과 연계감을 지니고 그 뒤로 수직으로 높이 선 건물군이 병풍처럼 전체 단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인근의 경사지에 제 4기가 계획되고 있다.

▶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의 '현립 군마(ぐんま)천문대'

현립군마천문대는 군마현의 인구가 200만에 다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관측만을 위한 천문대가 아닌 일반인의 교육 및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되었다. 관측소이자 테마파크이기도한 이 천문대에는 직경 150cm의 반사망원



경을 비롯, 여러대의 망원경을 위한 돔을 포함하여, 전시장, 영상물 상영실, 도서관, 관측 정원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섰다. 모뉴먼트 광장에는 영국의 스톤 헨지와 인도 고대 천문대의 관측 기기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건물은 산맥의 곡선의 흐름을 따라 완만한 곡선이 강조된 형태로 들어섰다.

▶ 로카꾸 키죠(六角 鬼丈)의 '동경예술대학 미술관'

거대한 배와도 같이 자리잡은 동경예술대학 미술관은 동경예술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다. 지상 2층, 지하 3층의 건물은 지상 2층의 자연광을 도입한 전시실과 지하 1층의 전시실을 사이에 두고 1층에 거대한 엔터란스 홀을 마련하였다. 수직 동선은 거대한 타원형의 평면을 갖는 오브제로 처리하여 그 안에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코어를 설치하고, 외부에서도 오브제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수직동선의 흐름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 쿠마 겐코(常 研吾)의 '물의 동굴'

부지는 일본 최장 운하인 貞山운하의 일부분인 北北上운하와 구北上川이 만나는 교점에 위치한다. 이곳에 북북상운하 정화사업의 하나로 導水機關관리시설과 기계실이 들어설 것이 계획되었다. 이에 덧붙여 교류시설과 운하의 전시시설이 함께 계획되어 전시관인 '물의 동굴'이 계획되게 되었다.